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조현우*

— <차 례> —

1. 문제제기
2.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 교육의 위상과 함의
3. 교양을 위한 고전소설 교육의 사례 - <방한림전>과 가족의 ‘탄생’
4. 교양교육과 고전문학의 ‘상생’을 위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살피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을 왜 교육해야 하는가를 검토했다. 또 고전소설을 교양교육에서 다루면서 연구사적 ‘지식’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고전소설 본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고전소설을 통한 교양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고전소설을 읽고 감상하되, 철저하게 현재적 가치와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지식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관심에 기반을 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학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방한림전>과 영화 <가족의 탄생>을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통합적 주제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두 작품에는 각각 ‘결핍’을 갖고 있지만 그 결핍을 관계를 통해 해소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또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가부장적 혈통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고 있음을 살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고전소설 작품을 현재적 가치와 관심사로 읽는 과정을 통해 현대 독자와 고전소설 사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에 화학적 접점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장에서는 교양교육과 고전소설 교육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古典文學’이나 ‘古典小說’에 썩워져 있던 ‘古’나 ‘典’이라는 ‘왕관’을 잠시 벗겨내고, 독자들이 ‘문학’과 ‘소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옛 문학과 옛 소설이 우리 곁에 ‘古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로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교양교육, 고전소설, 현재적 가치, 인문학적 재미, 방한립전, 가족의 탄생

1. 문제제기

‘古典’은 ‘클래식(classic)’의 번역어이다. ‘클래식’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클라시스(classis)’에서 비롯된 말이다. ‘함대’를 뜻하는 클라시스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 함대를 기부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클라시쿠스(classicus)’라는 말을 낳았고, 여기서 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왔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와 관련되어 극단적인 두 계급이 구분되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 함대를 만들어 기부할 정도의 자산가인 클라시쿠스가 있었고, 반대로 내놓을 것이라고는 자식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도 존재했다. 자식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계급 ‘프롤레타리우스(proletarius)’는 자식을 의미하는 ‘프롤레스(proles)’에서 온 말로 현대에도 종종 사용되는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원형에 해당된다. 결국 고전을 의미하는 클래식이라는 말은 국가적 위기인 전쟁 때 꼭 필요한 함대처럼, 인생의 위기에서 찾게 되는 책을 의미했다.¹⁾

이처럼 고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1) 이마미치 도모노부, 이영미 역, 『단테 <신곡> 강의』, 안티쿠스, 2010, pp.14-15 참조

온 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고전을 교육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학 교양교육과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가?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변화된 교육 환경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익숙해 이제는 진부하기까지 한 ‘인문학의 위기’는 무엇이든 ‘돈이 되는’ 것만을 우선시하는 시장논리가 대학의 운영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겨났다. 국어국문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위기이니, 그 하위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분야인 고전문학은 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좋은 학점과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전문학은 힘들지만 ‘영양가’는 별로 없는 과목으로 낙인 찍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미디어’나 ‘콘텐츠’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웬지 멋있어 보이는 명칭으로 국어국문학과라는 ‘옛스러운’ 이름을 대체하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위기에 처한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소설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탐구한다. 이러한 주제 속에는 몇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란 어떠한가, 심지어 교양교육이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비판적 관점을 가진 지성인의 양성을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²⁾

2) 물론 이러한 전제는 여러 가지의 근거 제시를 통한 논증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어떠한가 하는가의 원론적 문제가 아니라, 교양교육 속에서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이 대학에서 왜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참조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그 속에 굳이 고전문학, 그것도 고전소설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먼저 교양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 그리고 고전소설이라는 특정 시기, 특정 장르의 문학이 그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교양교육과 고전소설 사이의 '위계'와 관련된다. 우리는 고전소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양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양교육을 위해 고전소설을 일종의 '교재'로 이용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앞선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을 가르친다면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수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전소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된다. 또한 고전소설의 어떤 요소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가의 문제도 있다. 이는 우리가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여 교육해야 하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 교육이 어떠한가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교양교육에서 왜 고전소설을 교육해야 하는가를 탐구한다. 특히 고전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교육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방한림전>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영화 <가족의 탄생>과 함께 읽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교양교육과 고전소

김경희,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30,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6;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철학』20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송유진, 「대학 발전의 미래가치로서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육철학』39, 한국교육철학회, 2009.

설 교육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2.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 교육의 위상과 함의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음의 인용문들은 그에 대한 간명한 정의를 보여준다.

(1)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품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판단력과 도덕성 등을 지향해야 하고, 나아가서 교양교육은 제반 학문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일깨우고 자기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계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³⁾

(2) 교양교육은 단순히 전공 교육의 기초나 도구과목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를 통한 세계관 확립과 사회의 지도적 인물로서 필요한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능력의 배양에 그 목적이 있다.⁴⁾

인용문 (1)과 (2)는 공통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전공과목의 이수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교양교육이 본격적인 전공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기초과목이나 심지어 취미활동과 같은 보조과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양교육을 기초과목이나 보조과목을 교육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그저 학점 이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듣거나, 반대로 학점을 쉽게 얻기 위

3) 백미숙, 『교양교육으로서의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수사학』10, 성균관대학교, 2008, p.323.

4)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신광출판사, 1999, pp.383-384.

해 듣는 과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교양교육은 특정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나아가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함양이 목적이다. 최근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말 하거나 글쓰기 과목이 각 대학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대학 교양교육과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 교육은 어떤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가? 여기서 고전을 음미하는 과정이 교양교육의 핵심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시 검토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대학 교양교육의 커리큘럼 및 그 의의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하나는 서구문명에 관한 ‘일반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고전을 교육하지는 입장이었다. 전자는 서구문명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교육은 서구문명,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신격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두 번째 입장인 서구 고전을 통한 교육이 좀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고전을 통한 교양교육은 고전 작품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던 위대한 논쟁의 정수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고전을 통한 교양교육에 대해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고전이 인간이 사실상 대답하기 어려운 ‘영원한 문제’를 제시하는 작품이기에 역사적인 가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는 역사나 사상은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뿐,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⁵⁾ 이렇게 되면 현재

5) 미국에서 이루어진 교양교육에 대한 논쟁 및 주요 입장에 대한 비판 부분은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

를 사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는 ‘이미’ 고전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가능한 답 역시 고전에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고전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고전에서 현재적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문제의 범위를 한정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통해, 현재의 고민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전은 현재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고민하기 위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텍스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전은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그 현재적 의의가 발견되어야 하는 텍스트이지 문제를 이미 풀어놓은 답안지가 아니다.

이 문제를 고전소설과 연관지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古典小說’이라는 명칭 자체를 음미해보기로 한다. ‘古典小說’은 그 명칭으로 볼 때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①古, ②典, ③小說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이 중에서 대학 교양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본다.

①古는 ‘지금’을 사는 우리가 ‘옛날’을 알기 위해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춘향전>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나오는 복식이나 음식에 집중하면서 복식이나 민속사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도 있다.⁶⁾ 또

마크 C. 헨리, 강유원 외 편역, 『인문학스터디』, 라티오, 2009, pp.21-31 참조.

6)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동욱의 『조선복식사 연구』(아세아문화사, 1973)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춘향전>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식사 연구로 이어지

고소설에 등장하는 배경적 요소에 집중하여 당대의 인식이나 신분제 등을 연구할 수도 있다.⁷⁾ 역사적 접근이라면 이러한 방식의 활용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또 문학적으로 접근할 때라도 그 당시의 정서와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필수적이나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일도 중요하다.

②典는 해당 고전이 왜 뛰어난가, 즉 그 ‘秀越性’을 교육하는 일이다. 사실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고전문학 교육, 특히 전공과목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금오신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 교육의 주안점은 결국 이 소설이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대한 것이다. 이 작품을 둘러싼 ‘최초 소설’ 논쟁이나 전기소설사의 구성 문제 역시 이러한 논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이 관점을 교양교육 현장으로 가져올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평가하는 고전소설의 가치와 교양교육 현장에서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다양한 이유에서 어떤 작품을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 가령, 그 작품이 어떤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작가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속한 장르의 고갱이를 담고 있거나 반대로 그 장르의 변화를 대표하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이유는 사실상 일반 독자가 그 작품을 읽고 부여하는 가치와는 무척 다르다. 예컨대 15세기의 <금오신화>나 16세기의 <기재기이>에 대해 고소설 연구자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대체로 소설사적인 의의에서 비롯된다면, 현재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저 슬프거나 기이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①과 ②는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7)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신병주·노대환, 돌베개, 2002)은 고전소설을 통해 ‘역사’를 연구하는 좋은 사례이다.

내용에 대한 교육은 이 소설들을 즐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계에서 왜 이 작품들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합의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③小説에 주목하는 일은 이 작품들을 ‘이야기’ 자체로 접근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비노(Italo Calvino)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흥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3) 고전이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고전 작품이 고전으로 ‘기능’할 때, 다시 말해 그 작품이 독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난다. 작품을 대할 때 아무런 불꽃도 일지 않는다면, 독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무감이나 무조건적인 경외의 관점에서 고전을 읽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그 작품이 좋아서 읽어야 한다.⁸⁾

세상에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매주 새로운 영화가 개봉된다. 서점에는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쌓여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꼭 어떤 시대의 고갱이를 담고 있거나 전문적인 연구자들에게 뛰어나다는 칭송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재미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좋아서 읽었을 때 그 속에서 삶의 자양분이 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문학작품이 우리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그 작품이 우연찮게도 ‘古典’의 반열에 든 작품이라면, 우리는 그와 같은 독서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

8) 이탈로 칼비노, 이소연 역, 『왜 고전을 읽는가』, 『왜 고전을 읽는가』, 민음사, 2008, p.14.

다. 고전이란, 칼비노의 말처럼 우리가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고전이 모든 사람에게 재미있는 책인 것은 아니다. 또 재미있는 책이라고 해서 모두 고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독자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에게 그 책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재미있어서 읽은 책이 고전의 반열에 든 책이라면, 읽은 사람이 그 책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교양 교육에서의 문제는 연구자들이 이 책이 왜 고전이고 뛰어난 책인가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그 책에서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관심사를 읽어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전 속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어떤 유의미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을 좋아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고전소설을 읽고 감상하되, 철저하게 현재적 가치와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모든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현재적 관심사와 관련된 고전 작품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읽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고전이 각 시대마다 동일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책이 고전으로 평가받았다가도 다른 시대에는 그 시효를 다해 잊힌 경우도 많았다. 또 각 시대의 당면 과제나 관심사에 따라 잊혔던 책이 다른 시대에는 다시 고전으로 부활하기도 한다.⁹⁾ 이러한 현상은 어떤

9) 어떤 작품이 ‘正典’이나 ‘古典’의 반열에 오르는 일은 그 작품에 내재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가치를 현재적 관심사에서 ‘발견’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책이 고전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그 책 자체의 가치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당대 상황이나 독자의 개인적 관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양교육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관심에 기반을 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각자 그리고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1장에서 던졌던 교양교육과 고전문학 사이의 ‘위계’에 관한 질문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고전문학 교육을 위해 교양교육 과정을 활용하는가, 아니면 교양교육을 위해 고전문학을 활용하는 것인가? 필자는 단연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양교육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비판적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전문학 작품들은 이를 위한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가령, <이생규장전>을 가르친다면, 전기소설사에서의 위상이 아니라 ‘왜 오직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가?’와 같은 보편적인 질문을 이끌어내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답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고전 작품을 자신의 관심을 통해 창의적으로 읽어내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교양교육에서 고전소설이

있다. 가령, 주희가 당대에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맹자를 복원하여 공자 다음 가는 ‘亞聖’의 지위로 격상했던 일은 그 좋은 사례이다. 주희는 공자와 맹자의 뒤를 잇는 사상가가 자신이라는 ‘道統’의 계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계보는 맹자의 복권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학문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현재적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시어도어 드 배리, 표정훈 역, 『중국의 ‘자유’ 전통』, 이산, 2004, pp.46-47 참조.

10) 필자는 <이생규장전>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한 경험과 내용을 한 편의 글로 정리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조현우, 「<이생규장전>-왜 오직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가?」, 오세정·조현우,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 이숲, 2010, pp.65-89 참조.

왜 꼭 문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영화나 시, 나아가 생물학이나 사회학 같은 다른 학문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¹¹⁾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미디어나 콘텐츠와 같이 최근 유행하는 개념들과 반드시 연결될 필요는 없다. 또 고전 작품을 새롭게 유행하는 ‘문화콘텐츠’로 바꾸는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양교육은 좀 더 근본적인 인문 정신을 상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네들은 어찌하여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풍속의 성쇠를 살필 수 있게 하며,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며, 위사람의 잘못을 풍자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있으며, 새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준다.”¹²⁾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 ‘문이재도론(文以載道論)’을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문학의 가치를 문학 그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한 ‘도구’로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 시대의 ‘문학’이나 ‘시’와 근대 이후 정착된 예술로서의 문학이나 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11) 필자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 하나는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이 만복사에서 만난 여인이 귀신인줄 알면서도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사건을 자신이 최근에 들었던 심리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인 ‘인지부조화’를 활용해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인지부조화’는 인간이 자신의 여러 인지 내용 사이에 모순이 존재할 때 그것을 불쾌하게 여겨 그러한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때 이미 한 행동이나 외적인 사실을 고칠 수 없기에, 주로 행동과 사실에 맞게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이 학생은 인지부조화를 토대로 <만복사저포기>와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왜 선우(이병헌)가 보스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회수(신민아)의 행위를 묵인했는가를 함께 설명했다.

12)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論語> ‘陽貨’).

있다. 공자에게 시는 현대의 관점처럼 문학장르 중 하나로서 이해되는 좁은 개념이 아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공자는 시를 풍속, 친교, 풍자, 윤리 그리고 지식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한때 한국의 인문학을 뒤흔들었던 ‘다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나 ‘통섭’(Consilience)은 사실 공자의 언급 속에서 이미 낫설지 않은 개념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보면, 위의 인용문은 오히려 대학의 교양교육과 고전문학 사이의 유의미한 ‘접점’에 대한 고민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교양교육은 단순히 전공교육을 위해 예비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비판하는 지적 능력의 함양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고전소설은 충분히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교양교육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은 고전소설이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고전소설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현재적 관심사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투영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고전소설 연구사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고전소설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을 다른 분야의 학문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양교육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고전소설에서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느끼는 ‘재미’는 단순히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재미’는 ‘나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가, 옛날과 지금이, 그리고 문학과 다른 학문이 어우러지고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인문학 본연의 통합

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재미일 것이기 때문이다.¹³⁾

3. 교양을 위한 고전소설 교육의 사례

- 〈방한림전〉과 가족의 ‘탄생’

〈방한림전〉은 동성 결혼이라는 설정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간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¹⁴⁾ ‘동성 결혼’은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독특하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장르 명칭 자체가 주인공이 ‘영웅’이되 그 성별이 예외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방한림전〉은 예외 중의 예외인 셈이다.

그러나 〈방한림전〉을 교양교육에서 다룬다고 할 때, 전술한 ‘예외적 성격’에 주목하는 일은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방한림전〉이 예외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이 작품이 조선 시대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만 그러하다. 외국의 사례이

13) 인문학 본연의 통합적 사고가 인문학을 ‘즐기는’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오세정, 『인문학의 정체성, 그리고 인문학 즐기기』, 『시민인문학』19,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pp.223-232.

14) 본고에서 참고한 논문의 목록만을 제시한다.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21, 반교어문학회, 2006;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知己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27, 관악어문학회, 2002;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6, 국문학회, 2001; 정병현,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기는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이 이미 가능해진 현재 <방한림전>의 설정은 그리 놀랍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방한림전>을 ‘현재적 관심사’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 다른 방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방한림전>을 2006년에 개봉한 영화 <가족의 탄생>¹⁵⁾과 함께 읽으면서 <방한림전>이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고전소설을 영화와 비교하는 작업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가령 <춘향전>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과 함께 다루는 일은 그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고전소설 중심의, 그리고 ‘소재’ 중심의 접근인 경우가 많았다. 고전소설 중심의 접근이란, 고전소설을 좀 더 재미있게 가르쳐 보겠다는 의도에서 고전소설과 영화를 함께 다루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소재’ 중심의 접근이란 <춘향전>, <홍길동전>, <장화홍련>처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고전소설의 사례¹⁶⁾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러한 고전소설 중심이나 소재 중심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본고에서는 <방한림전>에서 현재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현재적 작품을 <방한림전>과 대비하고자 한다. <방한림전>과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영화 <가족의 탄생>은 그런 점에서 선택되었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문제는 ‘우리에게 家族이란 무엇인가?’, ‘家族은 어떻게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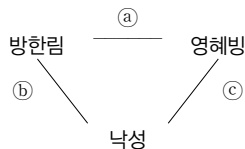
15) 김태웅 감독, 문소리·임태웅·고두심 주연, 블루스톱(주) 제작, 2006.

16) 권순궁 교수에 따르면, 고전소설이 영화화된 사례는 모두 42편(<춘향전> 22편, <장화홍련전> 7편, <심청전> 4편, <홍길동전> 4편, <숙영낭자전> 2편, <콩쥐팍쥐전> 2편, <운영전> 1편)이다. 여기에 2009년 개봉된 <전우치>까지 포함하면 43편이 된다. 권순궁, 『고전소설의 영화화 - 1960년대 이후 <춘향전> 영화를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179-180.

어지는가?’이다.

<방한림전>은 제목에 ‘傳’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방한림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성으로 태어난 방관주가 어떻게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원하고 나아가 번성하게 했는가를 서술한다. 방관주는 ‘남장’을 하고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 ‘남성’인 ‘방한림’이 된다. 방한림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영혜빙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아들 낙성을 입양함으로써 ‘가족’을 이룬다. 그런데 방한림이 영혜빙·낙성과 함께 만들어낸 ‘가족’은 기존 사회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한림이 결혼했던 시점에는 그가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결혼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결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방한림과 영혜빙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기에 이들 사이에는 그들의 ‘血統’을 계승한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들은 양자 낙성을 얻어 기른다. 문제는 이들 세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관계 ①에서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어떤 성적 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평생은 ‘知己’처럼 지낸다. 관계 ②에서 낙성은 방한림과 방씨 가문의 적법한 ‘후계자’지만, 방한림과 낙성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 이는 관계 ③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렇게 볼 때, 관계 ㉠·㉢·㉣에는 가부장제의 ‘가족’이 구성되기 위한 필수조건이 모두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 ㉠·㉢·㉣에 각각 무엇인가 하나씩 결핍되어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집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족’을 구성한다. 여기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결핍을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한림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판단하는 성적 정체성이 불일치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적통 후계자의 존재는 그에게 존재하는 불일치를 상상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영혜빙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知淸’의 관계로 사는 것을 꿈꾸는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가 속한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방한림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남편으로 선택한 이유이다. 따라서 방한림과 낙성의 존재는 그녀의 선택을 ‘가족’의 구성으로 이끌어준다. 낙성은 천애고아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족’이나 ‘가문’이 처음부터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방한림과 영혜빙이라는 ‘父母’는 그의 결핍을 해소해주는 존재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방한림, 영혜빙, 낙성이 각각 갖고 있는 결핍이 그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족’을 통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탄생된 가족이 기존 가부장제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새로운 형태라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방한림과 영혜빙이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혈통을 이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씨 가문은 그들의 대에서 절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낙성을 통해 방씨 가문은 변창한다. 가부장제 존속의 핵심 가치인 ‘혈통’으로 본다면 가문의 대가 끊겼지만, 동시에 번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방한림과 영혜빙, 그리고 낙성은 가부장제적 가족의 외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 가치

와는 무관한 가족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낙성 이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문이 번성한다고 해도,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그 전대와 무관한 가족이기 때문이다.¹⁷⁾

영화 <가족의 탄생>은 크게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날줄과 씨줄로 얽히면서 하나로 연결된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가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의 ‘가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미라(문소리)와 형철(엄태웅) 남매가 등장한다. 형철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미라의 삶 속으로 침입해 들어온다. 그는 자신보다 스무 살 연상의 여인인 무신(고두심)을 데리고 나타난다. 미라가 간신히 이들에게 적응할 무렵, 무신의 전남편 소생인 딸까지 등장한다. 문제는 형철이 또 다시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결국 서로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세 여인만 남아 ‘가족’을 이룬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랑에 빠진 엄마를 미워하는 딸의 이야기이다. 엄마(김혜옥)는 쉽게

17) 가부장제 하에서의 ‘가문’은 남성의 ‘혈통’ 보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성 혈통의 순수성은 계급·인종·연령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작동되는 기제를 통해 여성의 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다른 ‘피’가 섞일 수 없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보존된다. 이러한 과정은 ‘제사’라는 의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된다. 제사란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의식의 주체는 현재의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족이다. 그런데 이들 역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듯 언젠가 이들의 후손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또 제사를 올릴 것이다. 따라서 제사란 과거의 조상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먼 미래의 후손이 하나로 이어지는 일종의 혈연 네트워크가 된다. 그런 점에서 <방한림전>의 설정은 이러한 혈연 네트워크가 끊어져버린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방씨 가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惡女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pp.329-337;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공선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p.245.

사랑에 빠진다. 문제는 그녀의 사랑이 대체로 짧거나 ‘불륜’이라는 점이다.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딸 선경(공효진)은 애정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경석(봉태규)과 채현(정유미) 사이의 밀고 당기는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다. 경석은 남자친구인 자신보다 남들에게 더 친절한 여자친구가 견디기 힘들다. 결국 그들은 이별여행을 떠나지만, 채현 ‘엄마들’의 중재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채현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무신의 의붓딸이다. 그녀는 무신과 미라를 모두 ‘엄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석은 두 번째 에피소드 주인공인 선경의 의붓동생이다.

결국 <가족의 탄생>은 얽히고설킨 인연이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가족’으로 탄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경석과 채현의 가족들은 경석의 누나인 선경이 속한 합창단의 공연을 텔레비전으로 함께 시청한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혀 혈연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 경석과 선경은 아버지가 다르고, 채현과 미라·무신은 모녀 관계이거나 시누이·올케 사이지만 혈연 중심의 가족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형철이 갑자기 이들 ‘가족’ 앞에 나타나지만, 정작 친 누나인 미라가 그를 거부하는 모습은 혈연과 무관한 새로운 가족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혈통과는 무관한 이들이 모여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영화는 <방학립전>에서 만들어졌던 ‘가족’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이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족은 가부장제적 가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동시에 어느 가족 못지않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혹은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속담 속에는 결국 가부장제적 질서를 수용하고, 그 질서에 맞춰 살리는 일정한 강요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중에서 모르는 타인에게 받는 것과 얼굴을 부대끼며 사는 가족에게 받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고 깊은가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가 나와 같은 핏줄이기에 어느 정도의 아픔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다른 쪽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감싸거나, 별다른 정당한 근거 없이도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족에게서 오는 부당한 ‘상처’와 부당한 ‘이득’은 서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두 작품은 이러한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꼭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존재하고 있었던 가부장제 하에서의 ‘결핍’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은 모르는 타인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가족’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잘 드러내준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교양교육에서 <방한림전>을 현재적 가치나 관심사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에서 <방한림전>을 교양교육에서 다루

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방한림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젠더 정체성은 남성이다. 그런 점에서 방한림은 ‘트랜스젠더’라고도 할 수 있다.¹⁸⁾ 이렇게 보면 <방한림전>을 통해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드랙킹’이나 ‘드랙퀸’의 문제, 혹은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논쟁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동성 결혼 및 그들의 자녀 입양 문제 등을 다루어볼 수도 있다. 물론 이 소설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이 왜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당대의 여성독자들은 이 소설을 왜 읽고 즐겼을까와 같은 좀 더 ‘정통적인’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 모를까 교양교육 과정에서 굳이 이런 방향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적 관심사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어야 고전이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읽는 고전이 생겨날 수 있다. 현대 독자와 고전소설 사이의 화학적 접점을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사적 흐름과는 다른 ‘오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독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것이고, 심지어 권장될 필요가 있다. 고전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고전을 현재에도 살아숨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 서신혜는 방한림을 ‘트랜스젠더’와 관련지어 논의했다. 논자는 <방한림전>이라는 작품이 “설명할 용어가 없는 엄연한 현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서신혜, 「개인의 이름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2010, pp.290-297 참조.

4. 교양교육과 고전문학의 ‘상생’을 위하여

고전소설 연구자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책을 냈을 때, 서문에서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옛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언급을 흔히 보게 된다. 가령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든지, 혹은 어렸을 적에 집에 있던 고소설을 읽으면서 빠져들었다든지 하는 언급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런 언급은 고전문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고전문학이 ‘좋아서’ 그랬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한다면, <춘향전>이 우리나라 고전문학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평가를 받는 작품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를 연구하려 마음먹었다기보다는, <춘향전>이 좋았고 이 작품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길로 접어든 이후에도 여전히 고전소설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비전공자와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말은 자신이 연구하는 고전소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신성화’하면서, 그 결과 고전소설과 비전공자 사이에 넘기 힘든 높은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고전소설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작품들이 과거에 천대받던 장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간에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라는 의미의 ‘稗說’이 고전소설의 출발이었음을 지켜올 정도로 들어오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에서 연구사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이야기가 가진 본연의 ‘재미’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하는가는 명확하다. 고전소설은 무엇보다 ‘이야기’이고, 그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재미’를 비전공자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⁹⁾ 이러한 방식도 고전소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소설을 각광받는 문화콘텐츠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문화콘텐츠는 무엇보다 산업이며, 이는 고전소설이라는 원재료를 일정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가공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고전소설을 그 자체로 즐기는 독자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고전소설을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 인력이 존재해야 한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나,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²⁰⁾으로 변주된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는 원작을 뮤지컬이나 영화로 만들어낸 전문 인력의 존재도 중요하겠지만, 원작 자체를 즐기는 독자층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러한 상업적 기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가 선행되어야 두 번째도 존재할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즐겁게 읽고, 여기서 자

19) 권순궁 교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소설 교육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고전문학의 외연을 과감하게 넓히고 다른 분야의 매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문학을 교육산업이나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국문학의 지식을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해야 국문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이를 위해 교양과 전공, 문학과 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영화, 디지털서사, 문화예술 등의 매체로 고전문학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문학의 독자층 확대와 같은 저변의 확보가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교양교육과 고전문학의 연계 방식은 이러한 저변의 확보를 위한 제안이다.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pp.27-53 참조.

20) 바즈 루어만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클레어 데인즈 주연, 1996.

신의 직업적 관심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찾아낸 독자가 없었다면 영화나 뮤지컬로의 변용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전소설이 다른 장르로 전환된 작품을 생각해보자.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정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왜 몇 안 되는 작품만이 거듭 그 대상이 되어야 했는가는 분명하다. 고전의 현대적 변용은 그 작품의 ‘뛰어남’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작품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익숙한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전소설 전공자들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인 <방한림전>이나 <소현성록>, <김영철전> 등을 떠올려보자. 이들이 소설사에서 각기 나름의 위상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려 한다면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핵심은 그 작품의 ‘뛰어남’과는 무관하게 대중들에게 낯설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품들을 현대적 장르로, 그리고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적어도 대학생들이 김영하, 이기호,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 스티븐 킹의 작품과 함께 이 작품들을 읽고 자유롭게 감상하고 토론하게 하는 일이다. 교양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전문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적 관심사를 투영하거나,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전문학이 ‘문화콘텐츠’로 전환되는 선결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¹⁾

21)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고전 작품을 아무렇게나 읽어도 좋거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에 대한 연구업적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가령, <춘향전>에 대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업적들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춘향전>의 연구사 소개와 <춘향전>에 대한 현대 독자의 적극적 향유 중에서 ‘교양교육’의 초점은 후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양교육 내에 일정한 ‘단계’(level)를 설정하고 고전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

교양교육을 단순히 전공교육을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로 인식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 교양교육이 그 출발에서 그러했듯이 지성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된다면, 그 속에서 고전문학 교육 역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양교육이 고전문학과 같이 홀대받는 분야가 살아남기 위한 ‘교두보’는 아니다. 교양교육은 그 자체만의 고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전문학을 포함한 여타 학문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고전문학 전공자인 우리가 교양교육과 고전문학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고전문학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양교육과 고전문학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양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또 교양교육 과정에서 고전문학 교육이 설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수강생들이 고전이 재미있고 좋아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古典文學’이나 ‘古典小說’에 썩어져 있던 ‘古’나 ‘典’이라는 ‘왕관’을 잠시 벗겨내고, 독자들이 ‘문학’과 ‘소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옛 문학과 옛 소설이 우리 곁에 ‘古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로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論語>
<방한림전>

요가 있다. 그러한 ‘단계’가 만들어진다면, 본고의 내용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제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의 탄생>, 김태용 감독, 문소리·엄태웅·고두심 주연, 블루스톱(주) 제작, 2006.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 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15,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pp.27-53.

권순궁, 『고전소설의 영화화 - 1960년대 이후 <춘향전> 영화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179-180.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pp.189-216.

김경희,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30,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6, pp.111-135.

김동욱, 『조선복식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철학』20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pp.11-42.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21, 반교어문학회, 2006, pp.223-252.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知己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27, 관악어문학회, 2002, pp.225-245.

송유진, 『대학 발전의 미래가치로서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육철학』39, 한국교육철학회, 2009, pp.131-158.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pp.156-193.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신광출판사, 1999, pp.383-384.

백미숙, 『교양교육으로서의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수사학』10, 성균관대학교, 2008, p.323.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pp.290-297.

신병주·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오세정, 『인문학의 정체성, 그리고 인문학 즐기기』, 『시민인문학』19,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pp.223-232.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6, 국문학회, 2001,

pp.253-277.

정병헌, 『<방한립전>의 비극성과 타자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17,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2009, pp.373-399.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惡女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pp.329-337.

조현우, 『<이생규장전>-왜 오직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가?』, 오세정·조현우,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 이숲, 2010, pp.65-89.

마크 C. 헨리, 강유원 외 편역, 『인문학스터디』, 라디오, 2009, pp.21-31.

시어도어 드 배리, 표정훈 역, 『중국의 ‘자유’ 전통』, 이산, 2004, pp.46-47.

이마미치 도모노부, 이영미 역, 『단테 <신곡> 강의』, 안티쿠스, 2010, pp.14-15.

이탈로 칼비노, 이소연 역, 『왜 고전을 읽는가』, 민음사, 2008, p.14.

조셉 브리스토우, 이연정·공선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p.245.

ABSTRACT

The Contemporary Value of Classical Novels
in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Cho, Hyun-woo*

This study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 Korean classical novels have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resources in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of university. The education of the classic has been covered by a university since the medieval of the West, and remained the core of general education in it. Cultivating a critical intellects, the effects of general education using the classics had been already proved for a long time. But there is as ever the problem which is emphasized on th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between the knowledge and the interest of the classics. In terms of contemporary value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latter must be stressed more than the former. I assert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should make students have interest in and be sure of the contemporary value of the classics. When the students in the courses of general education intend to get courage in the face of adversity by reading and learning the classics, the purpose of general education can be accomplish at last.

Key Words General Education, Classical Novel, Contemporary Value, Fun of the Humanities, *Banghanlimjun*, *Family Ties*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Incheon University.